

<9급 총평>

■ 이번 서울시 9급 추가 채용 한국사 시험 문제는 7급 시험과 마찬가지로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고, 작년 3월에 치러진 제1회 서울시 시험과 비교해도 비교적 무난한 편이었다. 보통은 난이도 조절을 위해 어려운 사료나 지문을 한 두 문제 정도 섞는데, 이번 서울시 9급 시험에서는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다만 18번 문제는 평소에 자주 출제하던 왕이 아닌 왕을 순서로 출제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다소 까다로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 출제 내용 분석 : 다음 점수 구간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만한 문제 기준

* 최상(90-100) / * 상(80-90) / * 중(60-80) / * 하(60점 이하)

문항	난이도	주제
01	중	원 간섭기 고려의 국가체제
02	중	대한제국 시기의 국권 피탈 과정
03	하	법흥왕의 업적
04	중	고구려의 대중국투쟁
05	하	경국대전
06	중	조.일 수호조규
07	하	영조의 정책
08	중	고려의 불교문화
09	중	조선시대 중앙통치기구
10	중	1960년대 정부의 경제 정책
11	중	조선초기의 대외관계
12	중	신라의 골품제
13	하	부여의 제도 및 특징
14	중	고려시대 무신정권기 정치와 문화
15	중	해방직후 대한민국의 정세
16	상	서간도에서의 독립운동
17	중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
18	최상	고려시대의 사건 순서
19	중	신간회
20	중	조선 초기의 과정

■ 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시험 치루느라 고생 많이 하였고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예비 공무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문항 및 자세한 해설은 김석훈 한국사 카페의 해설지, 이그점 공무원학원의 해설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정, 간절함, 진심, 공무원 한국사 김석훈 선생

01. 원간섭기 고려의 국가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려 전체가 몽골의 직할지로 편입되었다.
- ② 정동행성의 승상은 몽골의 다루가치가 전담하였다.
- ③ 관제격하의 일환으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로 통합되었다.
- ④ 대마리지가 집정대신으로서 국정을 총괄하였다.

정답 ③ | 원 간섭기의 정치상황

③ 원 간섭기 충렬왕 때에는 대대적인 관제의 격하가 이루어져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로, 6부는 4사로, 중추원은 밀직사로 개편되었다.

【오답풀이】

- ① 원 간섭기에도 고려는 왕실을 유지하는 등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 ② 정동행성은 원이 2차 일본원정을 준비하기 위해 고려에 설치한 기구로 그 장인 승상은 고려 국왕이 겸하였다.
- ④ 대마리가 집정대신이 되어 국정을 총괄한 것은 고구려 보장왕 때 연개소문 집권기의 상황이다.

02. <보기>는 대한제국 시기의 국권 피탈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 ㄴ. 일본은 대한제국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 ㄷ. 대한제국은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두게 되었다.
- ㄹ. 고종은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였다.

- ① ㄱ→ㄷ→ㄴ→ㄹ
- ② ㄴ→ㄷ→ㄱ→ㄹ
- ③ ㄷ→ㄱ→ㄹ→ㄴ
- ④ ㄹ→ㄷ→ㄱ→ㄴ

정답 ③ | 국권피탈 순서

ㄱ.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것은 1905년 11월 체결된 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이다.
 ㄴ. 일본이 대한제국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간섭한 것은 1907년 7월 체결된 한·일 신탁약(정미7조약)이다.
 ㄷ.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둔 것은 1904년 8월 체결된 1차 한·일 협약이다.
 ㄹ.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 것은 1907년 6월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③ ㄷ→ㄱ→ㄹ→ㄴ이다.

03. <보기>의 밑줄 친 ‘왕’ 대에 이루어진 내용을 옳게 고른 것은?

<보기>

재위 19년에는 금관국주인 김구해가 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와 항복하자 왕은 예로써 대접하고 상등(上等)의 벼슬을 주었으며, 23년에는 처음으로 연호를 칭하여 건원(建元) 원년이라 하였다.

ㄱ.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ㄴ. 왕은 연호를 고쳐 ‘개국(開國)’이라 하였으며 국사를 편찬토록 하였다.
 ㄷ. 왕호를 ‘성법흥대왕’이라 쓰기도 하였다.
 ㄹ. ‘신라육부’가 새겨진 울진봉평신라비가 세워졌다.
 ㅁ. 연호를 ‘인평(仁平)’으로 고쳤으며 분황사와 영묘사를 창건하였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정답 ③ | 법흥왕 대의 사실

밑줄 친 ‘왕’은 법흥왕이다. 법흥왕 때에는 금관가야의 구형왕(김구해)이 세 아들과 함께 항복하였으며(532), 신라 최초의 연호인 건원(建元)을 사용하였다(536).
 ㄷ. 울주 천전리 서석에 따르면 법흥왕을 성법흥대왕이라 쓰기도 하였다.
 ㄹ. 법흥왕 때인 524년(법흥왕 11)에는 신라 육부(六部)가 새겨진 울진 봉평리 신라비가 세워졌다.

【오답풀이】

ㄱ. 국호를 사로에서 신라로,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친 것은 지증왕 때이다.
 ㄴ. 연호를 개국(開國)으로 고치고 『국사』를 편찬한 것은 진흥왕 때이다.
 ㅁ. 연호를 인평(仁平)으로 고치고 분황사와 영묘사를 창건한 것은 선덕여왕 때이다.

04. 고구려의 대중국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구려는 요서지역을 선제공격함으로써 수나라를 견제하였다.
 ② 수 양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천리장성을 축조 하였다.
 ③ 을지문덕은 당 태종의 2차 침입을 살수대첩으로 막아 냈다.
 ④ 양만춘은 수나라의 별동대를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

정답 ① | 고구려의 대중국투쟁

① 고구려 영양왕은 수나라의 침입에 앞서 말갈병 1만을 거느리고 요서지방을 선제공격하였다.

【오답풀이】

② 천리장성은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조하였다.
 ③ 을지문덕은 수 양제의 2차 침입 때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④ 안시성주 양만춘은 당 태종의 대군을 격퇴하였다.

05.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조선시대 법령의 기본이 된 법전이다.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이다. (……) 편제와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 방식에 따랐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균정하였다.

- ① 성종 때 완성되었다.
 ② 조준이 편찬을 주도하였다.
 ③ 이·호·예·병·형·공전으로 나뉘어 정리되었다.
 ④ 세조 때 만세불변의 법전을 만들기 위해 편찬을 시작 하였다.

정답 ② | 경국대전

밑줄 친 ‘이것’은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이다.
 ①, ④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반포되었다.
 ③ 『경국대전』은 이·호·예·병·형·공의 육전 체제에 따라 정리되었다.

【오답풀이】

② 조준의 주도로 편찬된 법전은 『경제육전』이다.

06. 1876년 체결된 조·일 수호조규에 들어있지 않은 조항은?

- ①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동등권을 갖는다.
 ② 인천과 부산에 일본공관을 둔다.
 ③ 일본인 거주지역 내에서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④ 일본선박의 조선연해 측량을 인정한다.

정답 ② | 조·일 수호조규(강화도 조약)

① 조·일 수호조규 제1조는 조선을 자주국으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② 제10조는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을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 법에 의해 처리한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개항장 내에서의 일본의 치외법권을 인정한 것이었다.
 ④ 제7조는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는 규정으로 일본은 조선에게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상륙 지점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오답풀이】

② 인천과 부산에 일본공관을 둔다는 내용은 조·일 수호조규에 들어있지 않다.

07. 영조의 정책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형벌 제도를 개선해 가혹한 악형을 없앴다.
 ㄴ. 서얼 출신의 학자를 검서관에 기용하고 공노비의 해방을 추진하는 등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개선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ㄷ. 균역법을 시행하여 양반과 상민이 똑같이 군포를 부담하게 하였다.
 ㄹ. 청계천 준설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홍수에 대비하게 하였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정답 ① | 영조의 정책

ㄱ. 영조는 형벌 제도를 개선해 압슬형과 같은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였다.
 ㄹ. 영조는 청계천 준설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도시 빈민들을 구제하고 홍수에 대비하게 하였다.

【오답풀이】

ㄴ. 정조는 정유절목을 통해 서얼 출신들의 문과 응시 제한을 철폐하고 서얼 출신의 학자를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하여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게 하였다. 또한 공노비의 해방을 추진(실행은 순조 때)하는 등 신분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ㄷ. 영조 26년인 1750년에 시행된 균역법은 종전에 16개월을 기준으로 양인 정남들에게 2필씩 건던 군포를 12개월에 1필로 줄여준 것으로 양역변통론 가운데 감필론에 해당한다. 양반과 상민이 똑같이 군포를 부담하는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때 비로소 실현된다.

08. 고려시대 불교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전국에 비보사찰을 제한없이 늘려 불국토를 이루도록 당부하였다.
 ② 현종 때에는 거란의 대장경을 수입하여 고려의 독자적인 초조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완료한 후 흥왕사에 보관하였다.
 ③ 광종 대 균여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시 하고,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④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던 향도를 계승하여 신앙의 결속을 다졌으며, 매향 행위를 함으로써 내세의 복을 빌기도 했다.

정답 ④ | 고려시대의 불교문화

④ 향도는 삼국시대에 처음 등장하여 고려시대에도 존재하였으며, 향나무를 땅에 묻는 매향 행위를 통해 내세의 복을 빌고 신앙의 결속을 다졌다. 고려 후기가 되면 이것이 농민 공동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오답풀이】

①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절을 무분별하게 짓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② 현종은 거란의 침입을 부처의 힘을 빌려 막고자 『초조대장경』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선종 때 완성하였으며, 한동안 흥왕사에서 보관하다가 대구 팔공산의 부인사로 옮겨졌다.
 ③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은 의천이다.

09. 조선시대 중앙통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문관-궁중 도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학문기관
 ② 사간원 -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하던 언론기관
 ③ 승정원- 국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비서기관
 ④ 의금부-국왕의 명령을 받아 중대한 죄인을 다스리는 사법기관

정답 ① | 조선의 중앙통치조직

② 사간원은 국왕에게 간언하는 간쟁과 부당한 명령을 논박하는 봉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③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국왕의 비서기관이었다.
 ④ 의금부는 국왕 직속의 특별 사법기관으로 왕명을 받아 중죄인을 다스렸다.

【오답풀이】

① 궁중 도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학문기관은 홍문관이다. 예문관은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은 기구이다. 예문관의 관원은 한림(翰林)이라 하여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하고 사관(史官)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0. 1960년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귀속재산처리법을 공포하였다.
 ② 한미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였다.
 ③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④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되었다.

정답 ④ | 1960년대의 경제정책

④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된 것은 1962년 1월이다.

【오답풀이】

① 귀속재산처리법이 공포된 것은 1949년 12월이다.
 ② 한미경제조정협정이 체결된 것은 1952년 5월이다.
 ③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것은 1996년 12월이다.

11.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화이관(華夷觀)이라는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사대교린(事大交隣)을 기본정책으로 삼았다.
 ② 북진정책 하에 고구려 고토의 회복을 도모하였다.
 ③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무력진압을 위주로 하였다.
 ④ 동남아시아국가와는 교류가 없었다.

정답 ① |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

① 조선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화이관을 바탕에 두고 사대교린을 전 시대에 걸쳐 일관된 외교정책으로 삼았다.

【오답풀이】

②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고구려 고토의 회복을 도모한 것은 고려 초기이다.
 ③ 조선은 일본과 여진과는 강·온 양면책을 병행하였다.
 ④ 조선은 류큐, 시암, 자와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도 교류하였다. 특히 지금의 오키나와에 위치한 류큐 왕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유교 경전, 불경, 석종 등을 전해주었다.

12. <보기>의 밑줄 친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을(를) 따진다. [때문에] 진실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넘을 수가 없다. 나는 원컨대, 서쪽 중국으로 가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지략을 펼쳐서 특별한 공을 세워 스스로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라 고관대작의 옷을 갖추어 입고 칼을 차고서 천자의 곁에 출입하면 만족하겠다.

- ① 통일신라기에 성립하였다.
- ② 국학이 설립되면서 폐지되었다.
- ③ 진골은 대아찬 이상의 고위 관등만 받을 수 있었다.
- ④ 혈통에 따른 신분제로서 승진의 상한선을 결정했다.

정답 ④ | 골품제

<보기>의 밑줄 친 ㉠은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이다. 제시된 사료는 신라 6두품 출신의 당나라 장수 설계두에 대한 설명이다. 설계두는 골품제에 불만을 품고 당으로 건너가 군인이 되었으며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전사하였다.

④ 골품제는 혈통에 따른 신분제로서 관등 승진의 상한선은 물론, 가옥의 규모와 복식,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오답풀이】

① 골품제는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으며,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골품제에 대한 6두품 이하 신분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내부승진제인 중위제를 도입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② 골품제는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③ 골품제는 관등 승진의 상한선을 결정했을 뿐,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13. <보기>에 해당하는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은정월(殷正月)에 제천행사를 행하면서 국중대회를 열었다.
-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쳤다.
-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 지방 행정구획으로 사출도가 있었다.

- ① 소와 말을 순장하였고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 하였다.
- ② 제천행사는 ‘동맹’이었으며 국동대혈에서의 제사가 있었다.
- ③ 천군이 신성지역인 소도에서 농경의례 등을 올렸다.
- ④ 재해가 발생하면 왕은 교체 혹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정답 ④ | 여러 나라의 성장(부여)

<보기>에서 설명하는 고대 국가는 부여이다. 은력 정월에 제천행사를 행하였다는 것이나(영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는 풍습(우제점법),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풍습(형사취수제),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를 배상하게 하는 법률(1책 12법), 지방 행정구역으로 사출도가 존재했다는 점 등을 통해 부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부여는 1세기 초부터 왕호를 사용하는 등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였으나, 왕권이 미약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흉년이 들 때에는 왕이 교체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

【오답풀이】

- ① 소나 말을 순장하고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이용한 나라는 삼한이다.
- ② 동맹이라는 제천행사와 국동대혈에서 제사를 올린 나라는 고구려이다.
- ③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한 나라는 삼한이다.

14. 고려시대 무신정권기 정치와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신집권기 초반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상장군·대장군의 회의기관이었던 기존의 회의체 중방을 권력 기구로 삼았다.
- ② 최충헌은 군국의 정사를 관장하는 교정도감을 설치 했고, 최우는 정방과 서방을 사저에 설치했다.
- ③ 김보당과 조위충은 최충헌의 집권에 항거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 ④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지어 고려가 천손의 후예인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표현했다.

정답 ③ | 무신집권기의 정치와 문화

① 무신집권기 초반에는 기존의 상장군·대장군들의 합의 기구였던 중방을 권력의 중심기구로 삼았다.

② 최충헌은 최고집정부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였고, 그의 아들 최우는 자신의 사저에 인사기구인 정방과 문신들의 숙위기구인 서방을 설치하였다.

④ 이규보는 『구삼국사』를 창조하여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나타낸 『동명왕편』을 저술하였다.

【오답풀이】

③ 김보당의 난(1173)과 조위충의 난(1174)은 모두 이의방, 정충부 집권기에 일어난 반란이다.

15. <보기>의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했을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ㄱ.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ㄴ. 좌·우 합작 위원회, ‘좌·우 합작 7원칙’에 합의
 ㄷ. 이승만, 정읍 발언에서 남한만의 정부 수립 주장
 ㄹ. 유엔 소총회,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실시 결의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정답 ① | 해방 이후의 정세변화

ㄱ.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것은 1947년 10월, ㄴ.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된 것은 1946년 10월, ㄷ.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 발언을 한 것은 1946년 6월, ㄹ.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실시를 결의한 것은 1948년 2월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ㄷ-ㄴ-ㄱ-ㄹ이고, 이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건은 ① ㄱ이다.

16. <보기> 자료의 민족 운동가들이 추진한 독립 운동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8월 초에 여러 형제분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땅과 집을 파는데, 여러 집을 한꺼번에 처분하니 얼마나 어려우리요. 그때만 해도 여러 형제분집은 예전 대갓집이 그렇듯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수 없이 많았고 (……) 우리 집 어른(이회영)은 옛날 범절을 따지지 않고 위아래 구분 없이 뜻만 같으면 악수하여 동지로 대접하였다. (……)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경술년(1910) 12월 30일에 큰집, 작은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이은숙, 민족 운동가 아내의 수기, 서간도 시종기 -

- ① 신흥강습소를 만들어 민족 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 ②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등의 독립운동 기지를 설립하였다.
- ③ 간민회를 기반으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등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④ 나라를 되찾은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준비하였다.

정답 ① | 무장투쟁의 전개

① 우당 이회영 형제는 가문의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 서간도로 건너가 신흥강습소를 세우고 민족 교육 및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오답풀이】

- ② 이상설 등은 연해주 지역에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동휘 등은 대한국민의회 등을 조직하였다.
- ③ 김약연 등은 북간도 지역에 간민회를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서전서숙, 명동학교 등의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④ 임병찬 등은 고종의 밀명을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후 고종의 복위를 목표로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준비하였다.

17.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② 서북철도국을 설치해 경의철도 부설사업을 추진했다.
- ③ 우편학당, 전무학당, 상공업학교, 의학교, 광산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 ④ 고종 대에 비변사를 설치하여 근대화사업 전반을 관장하였다.

정답 ④ | 대한제국 시기 근대화 사업

- ① 대한제국 정부는 양전사업을 시행하고 근대적 토지 대장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② 대한제국 정부는 서북철도국을 설치하여 경의선 부설을 추진하였다.
- ③ 대한제국 정부는 우편학당, 전무학당, 상공업학교, 의학교, 광산학교 등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실업학교를 설립하였다.

【오답풀이】

④ 비변사는 삼포왜란 이후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가 을묘왜변 이후 상설기구가 되고, 임진왜란을 거치며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로 부상하였다. 이후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 축소·폐지되었으므로 대한제국 시기의 근대화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18. <보기>에 나열된 고려시대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거란의 소손녕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하여, 서희가 외교담판으로 거란군의 철수를 이끌어 냈다.
 ㄴ.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 본래 양민인 사람들을 환속 시켰다.
 ㄷ. 송나라 사신 서공이 고려를 방문하고 고려도경을 지었다.
 ㄹ.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실직(實職)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에게 처음 지급하였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ㄷ→ㄴ→ㄹ
- ③ ㄴ→ㄱ→ㄷ→ㄹ
- ④ ㄴ→ㄷ→ㄱ→ㄹ

정답 ④ | 고려시대 사건 순서

ㄱ. 거란의 소손녕이 고려를 침입한 것은 993년(성종 12), ㄴ. 노비안검법이 시행된 것은 956년(광종 7), ㄷ. 송나라 사신 서공이 고려를 방문한 후 『고려도경』을 지은 것은 1123년(인종 1), ㄹ. 전지와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976년(경종 1)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④ ㄴ→ㄷ→ㄱ→ㄹ이다.

19. <보기>는 1927년에 창립한 어느 단체의 강령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우리는 정치·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1.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 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였다.
- ② 일제에 의해 조작된 소위 105인 사건으로 탄압을 받았다.
- ③ 전국에 140여 개소의 지회와 약 4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 ④ 1929년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의 개최를 계획했다.

정답 ② | 신간회

<보기>의 단체는 신간회이다.

- ① 신간회는 1927년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여 조직되었다.
- ③ 신간회는 합법단체로 운영되며 전국 140여 개 소의 지회와 4만 여 명의 회원을 확보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 ④ 신간회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조사단 파견 및 민중대회 개최를 계획하였다.

【오답풀이】

- ② 105인 사건으로 탄압을 받은 단체는 신민회이다.

20. 조선 초기의 과전(科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과전은 성종 때까지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 ② 현직 관리에게 소유권과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였다.
- ③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모두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④ 과전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해 주었다.

정답 ③ |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

③ 1391년(공양왕 3) 시행된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였다.

【오답풀이】

① 과전은 직전법이 폐지되는 명종 때까지 경기도 일대의 토지로 한정되었다.

② 과전은 조세를 거두는 권리인 수조권만을 부여하였으며,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④ 과전은 상속되지 않고 관리가 죽거나 반역을 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관리의 유가족에게는 수신전이나 휴양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습을 허용하였다..